



중국 5세대 예상 지도부 분석

이지용 /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목 차

요약

- I. 서론: 중국 ‘5세대 지도부’ 분석 필요성
- II. 중국 ‘5세대 지도부’ 분석 방법
- III. 중국 ‘5세대 지도부’ 예상 인적 구성
- IV. 중국 ‘5세대 지도부’ 예상 인물 특징
- V. ‘5세대 지도부’ 예상 인물 특징분석을 통한 ‘5세대’ 정책 전망
- VI. 결론 및 정책제언

요 약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출범할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소수민족 문제관리, 법치 확립을 통한 사회적 합리성 강화, 다양화된 사회적 욕구의 충족,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내정치 과정의 민주화 또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호 모순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들의 견제에 대응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시장과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대내적 안정을 위해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동시적으로 중국 정치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재 ‘5세대’ 인적구성, 그리고 그들을 제약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제도적 요인들은 이러한 풀기 쉽지 않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5세대 지도부’에 대한 분석은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인물들이 현재 중국 특색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이 중국의 질적 도약에 주는 제약을 어떤 형식으로든 벗어던져야 한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할 것이며, 그러한 딜레마가 주는 도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I. 서론: 중국 ‘5세대 지도부’ 분석 필요성

201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자대회(18차 全代)를 개최한다. ‘18차 전대’가 폐막되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다음 날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中全會)를 개최하고 향후 중국의 10년을 이끌어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18차 전대’가 개최되어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현재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세대 지도부’가 정치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5세대 지도부’가 중국의 핵심 정치지도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5세대 지도부’는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현 상무부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10년간 중국의 정치지도부는 매우 험난한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개혁개방 30년간 비약적이고 눈부신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임계점을 향해 치달고 있는 객관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성장의 질은 그늘’을 밝히고 제2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중국의 고민은 2010년 10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5차 전체회의(17기 5中全會)에서 도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12·5 계획)’¹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이후 ‘선부론(先富論)’²에 기반해 경제성장과

¹ 중국은 1953년 시작한 ‘제1차 5개년 개발계획’ 이래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2006년 시작된 ‘제11차 5개년 계획’부터 ‘규획’이라는 개념을 사용함. ‘계획’은 구(舊) 소비에트식 경제발전 계획을 모방한 것으로 개념상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과 명령, 그리고 달성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규획’은 정부가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명령보다는 국내외 시장의 요구에 따른다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 또한, ‘규획’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 계획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대외정책 등 국정 현안 전 영역에 걸친 사안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임. 이지용,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 분석 및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년 10월 29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p. 1.

양적 발전을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내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 사회주의적 ‘평균주의(平均主義)’하에서 경제활동 동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제행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윤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부론’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이다. 둘째,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 지역과 중서부 및 북부 지역 간 격차이다. 셋째, 계층 간 빈부격차의 확대이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³는 2010년 이미 0.5를 넘어섰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계수인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선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 국가 수는 20개를 넘지 않는다. 중국 인민대학교 총장인 지바오청(紀寶成)은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에서 소득순위 상위 10%가 중국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⁴

사회·경제적 빈부격차 문제는 중국정치 체제의 특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보다 심각해진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이다. 공산당이 정·관·군뿐만 아니라 경제영역 전반에 걸쳐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일상적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문제이다. 권력독점하에서 정부 관료들은 일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관료들은 권력남용과 부패의 유혹에 취약하게 노출된다. 더군다나 개혁개방 30년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2. 덩샤오핑(鄧小平)이 1985년에 밝힌 개혁개방 추진 기본 원칙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경제적 동인을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부를 확산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 논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을 추동시킨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신 사회적 평등과 부의 균형적 배분 등은 정책 고려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3. 中國社會科學院, 『2011 社會藍皮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4. 法制晚報, ‘人大代表紀寶成稱北京市發展總指數全國第一,’ 2011年 3月 7日.

중국 관료들은 경제적 편익을 보다 많이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날로 증가하는 경제적 기회가 권력독점과 맞물리면서 당 간부와 정부 관료들은 권력남용과 부패의 유혹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국 사회의 심각한 부패문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당 간부와 정부 관료에 대한 일반 중국 국민의 불신과 불만의 수준이 정함수 관계로 증가했다. 개혁개방 이전과 초기에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소외감이 증가하는 빈부격차 속에서 점차 누적됨에 따라 권력을 독점한 일부 특권층의 권력남용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축적된 이러한 불신과 적대감은 중국정치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긴장이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으로서는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고 잠재음으로써 통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성 유지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즉, 저임금 자원 집약형 수출가공업 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도록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켰다. 생활 수준의 상승은 생활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거와 식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비용의 상승은 임금상승의 강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상승시켜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은 저임금 생산비용의 장점을 이용해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중국투자를 재고하게끔 만들게 된다. 또한, 저임금에 기반한 중국 국내기업들의 채산성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게 된다. 이는 해외기업들이 중국보다 더 낮은 생산비용을 제공하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기업의 도산이라는 결과 또한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사회의 고용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는 2010년 기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2.3억 명의 농민공이 있어, 실질 인원은 그 이상이 되는 ‘농민공’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실질 소비력이 약화된다는 문제 또한 발생시킨다. 약 13억 명의 전체 인구 중 약 8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상층과 부유층을 제외하고 약 12억 명 이상의 인구가 낮은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중국의 국내수요는 증가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데 있어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국가에 의한 부의 독점이다. 현재 중국 전체 국부의 약 70%는 국가 소유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그룹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국·공유기업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금융을 장악하고 있다. 국가가 금융과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독점 체제는 구조적으로 민간 부분의 성장을 현저히 제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부와 투자가 민간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는 정책집행권자들이 국유 기업과 금융을 장악하고 일종의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간에 자금을 대여해 주라는 정책을 결정하고 하달했을 경우 현장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민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상은 기존 권력과 결탁한 특권 및 기득권층에 대여됨으로써 일반 민간인들의 진입을 사실상 가로막고 차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 부분의 성장 지체는 중국 전체의 경쟁을 제약·약화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쟁력과 중국의 시장경쟁력 발전을 제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해올 수 있었던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가 이를 역으로 구속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치 체제의 일대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처지이다. 왜냐하면, 정치 체제의 일대 전환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폐기 또는 근본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지도부는 또한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과 특히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내에 팽배한 불만과 향상된 중국의 객관적 국력은 중국 내에 신민족주의(중화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대외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 정치지도부는 대내외 양면 모두에서 심각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현재 ‘4세대 지도부’를 대체할 ‘5세대 지도부’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중국의 향후 진로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가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약하고 있던 정치 체제를 주요인으로 해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접어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낙후와 저성장 구조로 후퇴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적 특색과 사회적으로 팽배해진 불만 등의 요인을 감안했을 때, 정치·경제적 소용돌이로 진입하면서 일대 혼란기를 거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등장하게 될 ‘5세대 정치지도부’ 분석에 들어가고자 한다. 중국정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인물중심의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핵심에 위치한 인물들에 대한 분석은 중국정치 및 대외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필수적 작업이 되어야 한다.

II. 중국 ‘5세대 지도부’ 분석 방법

중국 ‘5세대 지도부’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부’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4세대 지도부’를 이어갈 정치지도부 대상 인물 중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5세대 지도부’로 볼 수 있는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

5- 중국이 외교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 대내외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는 張歷歷, 『外交政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7) 참조.

이는 ‘5세대’를 이을 ‘6세대’와의 구분, 그리고 ‘6세대 지도부’ 예비 대상 인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5세대 지도부’ 중에서도 누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포함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정치국, 중앙위원회에 정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누가 포함될 것인가를 분석·예측하는 작업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5세대 지도부’에 대해 어떠한 것을 분석할 것인가 하는 분석범주를 추려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5세대 지도부’를 분석하는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목적을 설정한 이후 이에 따른 분석항목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서열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엘리트 층원과 지도부 계승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적 과정과 상황 및 조건 이입을 통해 추적(process-tracing)하고, 이론적으로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제도화 과정을 구체화해볼 때, 이러한 제도화가 역진(逆進)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같이 일인이 절대적 카리스마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혁명과 공산당 계급투쟁 과정에서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진 일인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 30년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양화되었다. 또한, 극단적 계급투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어 무제한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구조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⁶

한 일인의 절대적 카리스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타이쯔(태자당), 툐파이(공청단파), 또는 상하이 등으로 나뉜 파벌 간의 경쟁 관계는 결과적으로 지도부 계승의 제도화라고 하는 합리적 문제 해결 방법을 내오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국내정치 환경과 중국공산당 통치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 엘리트 간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넘어선 투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⁶- Bo Zhiyue, 2010, *China's Elite Politics* (New Jersey: World Scientific), pp. 17-131. 참조.

중국공산당의 생존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취약한 사회적 권력 기반을 고려할 때, 내부 권력 투쟁은 자칫 공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리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 간부임용 연령제한 제도이다. 향후에도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고려한다면 연령제한 제도와 함께 객관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제도의 추가적 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수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급격한 폐기나 제도변경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5세대 지도부’ 또는 ‘4세대 지도부’ 등의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정치세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⁷ 하지만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제4세대’, ‘제5세대’, 그리고 향후 ‘제6세대’ 등으로 나누는 현재 중국 정치지도부 세대 구분은 정치지도부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의해 구분된 것이다. 즉, ‘1세대’를 마오쩌둥(毛澤東) 중심의 혁명 1세대라고 본다면, ‘2세대’는 덩샤오핑과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한 마오쩌둥 시기 이후를 말하고 있으며, ‘3세대’는 장쩌민(江澤民)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조치 이후 후속 세대, ‘4세대’는 장쩌민 이후 현재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의 지도부 세대를, 그리고 ‘5세대’는 2012년 권력을 장악하게 될 세대를 의미한다.⁸

2012년 선출될 ‘5세대 지도부’를 가려내기 위해 무엇보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간부임용 연령제한 제도이다. 중국은 2007년 ‘17대 전대’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67세까지 임명이 가능하고, 정치국 위원은 65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내부방침을 내왔다. 이는 기존의 69세 연령제한을 보다 낮춘 것이다. 이러한 내부 방침에 따라 2007년 당 중앙위원회 ‘17기’에서 당시 67세였던 자칭린(賈慶林)

7- Cheng Li,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1), pp. 10-12; Paul Cavey, 1997, “Building a Power Base: Jiangzemin and the Post-Deng Succession,” *Issues and Studies* 33, 1-34. 참조.

8- 주장환, “중국 제5세대 정치 엘리트,” 『국가전략』 17:3 (2011), pp.152-153.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연임되었고, 쑹칭훙(曾慶紅) 당시 부주석을 포함한 68세 이상 정치국 상무위원은 퇴진했다. 이러한 내부방침은 2012년 ‘18차 전대’와 ‘18기’에서 그대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2012년 68세 이상이 되는 인물은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보군에서 2012년에 만으로 68세와 65세가 되는 인물들은 일단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연령 하한선이라는 것이 있을까?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연령 하한선은 없다. 다만, 연령 하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치국 위원 또는 후보위원 군에서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준, 즉 연령과 현재의 정치적 위치 등을 고려해서 후보군을 선별해 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선별된 후보군에 대한 분석항목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5세대 지도부’ 분석의 목적은 첫째, 새로운 지도부가 향후 중국의 국내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있다.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개혁개방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부의 균형적 분배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이들의 정책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도 관심의 초점이다. 이는 현재 중국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국·공유 기업 중심으로 전략적 산업발전 정책에 역점을 두는 방식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국가에 집중된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민간영역의 경제성장에 주력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발전방식의 전환문제가 걸려있다.

또 다른 문제로 90년대 중반의 세제 개혁과 중앙정부의 경제권 강화정책을 다시 중앙과 지방의 분권 체제로, 그리고 개혁개방 초기와 같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권한과 자율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점도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새로운 지도부의 대외정책 방향이다. 새로운 지도부의 이념적 정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주·객관적 환경에 처한 중국의 대외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북아, 동아시아,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셋째,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을 현재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파벌에 따라 분류해봄으로써,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파벌 간 균형적 배분을 통한 집단 지도체제, 그리고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식의 구도가 형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중국의 대내외 의사결정의 지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의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항목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표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파벌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파벌별 정책의 차이점은 현재로서는 과거에 비해 매우 희석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성장해온 배경, 직업적 이해 등이 이들의 의사결정과 이해에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가정을 할 때 유의미한 분석 지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벌에서 더욱 세부적인 지표를 도입할 것이다. 이 지표는 파벌에 상관없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커리어 부분이다. 즉,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배경이 되는 경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된 경력 배경이 에너지, 석유 등에 집중되어 있다면, 에너지 석유 부문에 인적 ‘관시(關係)’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이른바 ‘석유방’이라는 새로운 ‘이해 파벌’ 분류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력과 전공이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교육수준은 한 개인의 대외 개방성,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한 수용성, 관리능력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전공은 단순한 기술관료 출신인지, 아니면 법, 정치, 경제 등과 같은 사회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물론 이러한 지표가 한 인물의 정치 정향과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경향성을 보는 데는 유용하다고 본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부의 민족적 배경과 민족 비율 또한 정책의 유연성 등을 평가할 때 필요한 지표이다.

Ⅲ. 중국 ‘5세대 지도부’ 예상 인적 구성

중국의 정치지도부는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9인과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권력핵심으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정부의 부장급(장관급) 이상이 포함된다. 부장급에는 국무원, 지방 성 당서기 및 성장, 군부 인사 등이 들어간다. 이 중 ‘5세대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는 인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연령제한 조건이며, 이 조건을 기본선으로 볼 때, 2012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45년 이후에 출생한 인물이어야 하며,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1948년 이후 출생이어야 한다. 따라서 ‘5세대 지도부’ 예상 인물에는 상무위원의 경우 1945년 이후 출생자, 그리고 정치국과 중앙위원의 경우 1948년 이후 출생하고 주로 1950년대 출생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표 1>은 현재 17기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명단이다.

<표 1> 17기 정치국 위원

이 름	출생년도	현직위	‘5세대 지도부’ 해당 여부
후진타오(胡錦濤)	1942.12	상무위원,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주석	퇴진예정
우방궈(吳邦國)	1941.07	상무위원, 전인대위원장	퇴진예정
원자바오(溫家寶)	1942.09	상무위원, 국무원총리	퇴진예정
자칭린(賈慶林)	1940.03	상무위원, 정협주석	퇴진예정
리창춘(李長春)	1944.02	상무위원	퇴진예정
시진핑(習近平)	1953.06	상무위원, 부주석	상무위원 진입후보, 주석 예정
리커창(李克強)	1955.07	상무위원, 부총리	상무위원 진입후보
허궈강(賀國強)	1943.10	상무위원, 중앙기율위 서기	퇴진예정
저우용강(周永康)	1942.12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퇴진예정
귀보송(郭伯雄)	1942.07	위원, 군사위 부주석	퇴진예정

이 름	출생년도	현직위	‘5세대 지도부’ 해당 여부
류치(劉淇)	1942.11	위원	퇴진예정
류연둥(劉延東)	1945.11	女위원, 당중앙 통전부장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예정
류원산(劉雲山)	1947.07	위원, 당중앙 선전부장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예정
보시라이(薄熙來)	1949.07	위원, 충칭시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후보
쉬차이허우(徐才厚)	1943.06	위원, 군사위 부주석	퇴진예정
왕강(王剛)	1942.10	위원, 전 중앙판공청 주임	퇴진예정
왕양(汪洋)	1955.03	위원, 광둥성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후보
왕치산(王岐山)	1948.07	위원, 상무부총리	상무위원 진입후보
왕러추안(王樂泉)	1944.12	위원,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서 기	퇴진예정
왕자오궈(王兆國)	1941.07	위원, 전인대 부위원장	퇴진예정
위정성(俞正聲)	1945.04	위원, 상해시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예정
리위안차오(李源潮)	1950.11	위원, 당중앙 조직부장	상무위원 진입후보
장가오리(張高麗)	1946.11	위원, 텐진시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예정
장더장(張德江)	1946.11	위원, 부총리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예정
후이량위(回良玉)	1944.10	위원, 국무원 부총리	퇴진예정

출처: 중국정요일람(中國政要一覽),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http://www.china.com.cn/zhuanti2005/node_5035742.htm.

<표 1>에서와 같이 2012년 연령제한 조건을 기준으로 ‘5세대 지도부’ 후보
군을 일차적으로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현 정치국 위원 중 ‘5세대’ 진입 가능 인물

이 름	출생년도	현직위	‘5세대 지도부’ 해당 여부
시진핑(習近平)	1953.06	상무위원, 부주석	상무위원 진입후보, 주석 예정
리커창(李克強)	1955.07	상무위원, 상무(임)부총리	상무위원 진입후보
류원산(劉雲山)	1947.07	위원, 당중앙 선전부장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 예정
보시라이(薄熙來)	1949.07	위원, 충칭시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후보
왕양(汪洋)	1955.03	위원, 광둥성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후보
왕치산(王岐山)	1948.07	위원, 부총리	상무위원 진입후보
리위안차오(李源潮)	1950.11	위원, 당중앙 조직부장	상무위원 진입후보
장가오리(張高麗)	1946.11	위원, 텐진시 당서기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 예정
장더장(張德江)	1946.11	위원, 부총리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 예정

하지만 <표 2>에 현재 속하는 인물들이 모두 ‘18대’에서 상무위원으로 임명된다는 보장은 없다. 상무위원으로의 진입은 현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어, 파벌 간 안배, 업무실적과 평판 등이 고려되는 당내 권력 경쟁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표 2>에 제시된 인물들의 경우 상무위원으로 임명될 강력한 후보군에 속한다. 하지만 복잡한 당내 권력경쟁에 의해 의외의 인물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상무위원 후보군 외에 정치국 위원에 임명될 개연성이 있는 인물들을 현재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시 추려낼 필요가 있다.

2012년 18대에서 정치국 위원 또는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은 현재의 중앙위원회 위원과 부장급(장관급) 인물 중에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현재 중앙위원 중 2012년 65세 미만인 해당하는 1948년 이후 출생자 중 유력한 인물들에 해당한다.

<표 3>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 1948년 이후 출생자 명단

이 름	출생년도	현 직	파벌/비고
왕이(王毅)	1953	국가 및 당 중앙 타이완사무관 공실 주임	타이쯔(태자당)
왕후닝(王滬寧)	1955	중공 중앙 정책연구실 주임,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상하이 기반이나 후진타오, 시진핑 등 폭 넓은 지원
왕자루이(王家瑞)	1949	당 대외연락부장	
링지화(令計劃)	1956	중공 중앙 관공청 주임, 중앙 서기처 서기	탄파이(공청단파)
지빙쉬안(吉炳軒)	1951	헤이룽장 성 당서기	탄파이(공청단파)
류치바오(劉奇葆)	1953	쓰촨 성 당 위원회 서기	탄파이(공청단파)
류펑(劉鵬)	1951	국가체육총국 국장	탄파이(공청단파)
쑤정차이(孫政才)	1963	지린성 당서기	탄파이(공청단파)
양징(楊晶)	1953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탄파이(공청단파)
양위안위안(楊元元)	1950	국가안전생 산감독관리총국 부국장	타이쯔(태자당)
쑹슈옌(宋秀岩)(여)	1955	전국부녀연합 부 주석	탄파이(공청단파)
장바오순(張寶順)	1950	안후이 성 당 위원회 서기	탄파이(공청단파)
장칭리(張慶黎)	1951	허베이 성 당위원회 서기	타이쯔(태자당)
장여우샤(張又俠)	1950	선양(沈陽) 군구 사령관(상장)	타이쯔(태자당)
저우샤오촨(周小川)	1948	중국 인민은행 총재	
맹젠주(孟建柱)	1947	공안부장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
후춘화(胡春華)	1963	네이멍구 당서기	탄파이(공청단파)
위안춘칭(袁純淸)	1952	산시(山西) 성 당서기	탄파이(공청단파)
한정(韓正)	1954	상하이 시 시장	상하이(공청단파 기반)
한창푸 (韓長賦)	1954	농업부 부장	탄파이(공청단파)
창웨이(強衛)	1955	칭하이 성 당위원회 서기	탄파이(공청단파)

출처: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위원명단(中國共產黨第十七屆中央委員會委員名單),
http://www.china.com.cn/17da/2007-10/21/content_9098903.htm.

18대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은 위 <표 3>에 제시된 현재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발되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유력한 이들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는 왕후닝, 왕이, 링지화, 쑨정차이, 저우샤오촨, 멩젠주, 후춘화, 위안춘칭, 한정 등의 인물이 있다. 이들 중 특히 멩젠주는 만약 상무위원에 임명되지 않으면 자동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쑨정차이와 후춘화의 경우는 매우 유망한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1960년대생으로서 18대에서 '5세대' 최고지도부에 오르는 것보다는 보통 '6세대' 예비 지도그룹 중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이른바 40·50대 젊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발탁 중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최고 핵심지도부로서 '5세대'부터 역할을 맡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Ⅳ. 중국 '5세대 지도부' 예상 인물 특징

이번 장에서는 제2장의 방법론과 제3장에서 논의된 지도부 예상인물들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인물들과 이른바 파벌(faction)이라고 하는 엘리트 간의 정치적 관계성의 열개를 그려봄으로써 현재 중국 지도부가 구축해 놓은 제도적 틀이 현실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와 '관씨'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5세대' 최고 지도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를 말한다. <표 4>는 18대에서 상무위원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후보군을 대상으로 현직위, 파벌, 및 학력과 경력을 간단히 예시해 놓은 것이다. 물론 후보군 대상으로 <표 4>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 중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물들은 더 있다. 예를 들어, 위정성 상해시 당서기, 류옌둥(女) 국무위원, 링지화 중공 중앙 판공청 주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표 4>에 거론된 인물 중에서도 상무위원으로 진입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조건, 즉 연령, 경력, 파벌 경쟁 등으로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도 있다. 예를 들어, 류원산, 저우샤오촨,

명젠주, 왕후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반드시 상무위원에 임명되고 안 되고를 떠나 유력 후보군을 추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5세대’ 최고지도부의 면면과 특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로 한다.

<표 4> ‘5세대’ 최고지도부 예상인물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이름	현직위	파벌	학력 및 경력
시진핑(習近平)	당중앙 서기처 서기, 국가 부주석,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앙당교 교장 등	타이쯔	칭화대 법학박사
리커창(李克強)	상무(임)부총리	환파이	베이징대 법학박사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	타이쯔	베이징대, 중국사회과학원 석사, 상무부 부장, 랴오닝성 성장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	환파이	중국과기대 공학석사, 충칭시 당서기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타이쯔	시베이대학, 인민은행 부행장, 베이징시 시장
리위안차오(李源潮)	당중앙 조직부장	환파이	푸단대학, 중앙당교 과학사회주의 박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수학
장가오리(張高麗)	텐진시 당서기	상하이, 석유방	샤먼대, 중국석화 산동성 당서기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상하이	김일성종합대학
류원산(劉雲山)	당중앙 선전부장	타이쯔	중앙당교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	실무관료	칭화대 시스템공학 박사
명젠주(孟建柱)	공안부장	실무관료	상무위원 진입 실패시 퇴진
왕후닝(王滬寧)	중공 중앙 정책연구실 주임,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상하이 기반이나 후진타오, 시진핑 등 폭넓은 지원	푸단대학 교수

2012년 하반기부터 중국을 이끌어갈 최고지도자로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 혁명원로인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서 타이쯔(태자당)로 분류된다.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하방(下放) 되어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개혁개방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되었다. 치열한 당내 권력경쟁을 통해 중국의 핵심지도부에 올라섰으나 시진핑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⁹ 또한, 시진핑이 정확히 어떠한 국내외 정책을 전개할지도 여전히 미지수인 것이 사실이다.

리커창 상무부총리는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리커창은 공청단파로 분류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의 배경이 아닌 본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인물이다. 리커창에 대한 평가 역시 다양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정책적 지향과 결단력, 그리고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⁰ 이러한 평가 때문에 차기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왕치산 부총리이다.

왕치산 부총리는 신중함과 결단력으로 금융 및 국내 재정정책을 통해 중국의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왕치산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음과 동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인물로서 왕치산 부총리가 가장 적임이라는 것이 일반적 공감대이다.¹¹ 하지만 상무위원에 임명되는 것은 개인의 자질과 평판, 그리고 업무 성과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파벌 간 안배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왕치산은 타이즈로 분류되고 있다. 타이즈당에 속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리까지 타이즈로 임명되는 것은 파벌 간 권력 균형상 곤란하다. 이러한 파벌 간 권력배분을 감안할 때, 개인적 자질과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리커창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총리에 왕치산이 임명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파벌 간 권력배분을 고려할 때, 왕치산 부총리는 현재 리커창의 지위인 상무(임)부총리 후보로 임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9- 소마 마사루, 『시진핑』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1) 참조.

10- 중국의 정책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임. 인터뷰는 2011년 4월, 6월, 7월, 10월에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었음.

11- 중국의 정책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임. 인터뷰는 2011년 4월, 6월, 7월, 10월에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었음. 왕치산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아주경제』, “시진핑 시대 핵심100인” 시리즈, 왕치산-① G2 中경제 이끌 초특급 조타수,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11000360;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12000290을 참조.

다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후보군은 보시라이와 왕양이다. 보시라이는 중국공산당 혁명원로인 보이보(薄一波)의 아들이다. 2012년 권력 세대 교체를 앞두고 현재 충칭 당서기를 맡고 있으면서 이른바 홍색(紅色)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마오쩌둥의 혁명정신과 부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하고 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홍색가요(혁명가요) 이어 부르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빈부격차와 당 간부 및 관료들의 부정부패, 권력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일반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시라이와 상무위원 진입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왕양 광둥성 당서기이다. 왕양은 공청당파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자력으로 자수성가한 실력자이다. 보시라이와 같이 화려한 집안 배경과 요란한 선전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덩샤오핑으로부터 시작해 후진타오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과 인품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과 관련해서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광둥성에서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왕양이 2012년 상무위원으로 진입하게 되면 왕치산 부총리와 함께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위안차오,¹² 장가오리, 장더장은 상무위원 진입이 예견되는 유력한 인물들이다. 리위안차오는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을 맡고 있다. 리위안차오는 중국에서 청렴한 선비이자 강직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지도자로 유명하다. 리위안차오는 파벌과 관련해서 현재 공청단파의 핵심 3인방(리위안차오, 리커창, 류옌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수학하고 교수를 역임했으며 부친인 리간청(李干成)은 혁명 원로로서 상하이 부시장까지 지냈다.¹³ 리위안차오는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에 있어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질적 전환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¹² 리위안차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oushe.cn/p/OS2007100147689.html> 참조.

¹³ 「아주경제」, “시진핑 시대 핵심100인” 시리즈, “리위안차오 ①국가부주석 노리는 후의 이부상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13000311.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진타오의 이른바 “과학적 발전관”을 내실화하고 구체화했다. 장가오리는 장쩌민과 쑹칭홍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특히 장가오리는 쑹칭홍 전 국가부주석, 저우융캉 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를 잇는 석유방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중국의 대형석유 국유기업인 중국석화, 중국화공, 중국해양석유 등은 세계 500대 기업에 들 정도의 대형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막대한 양의 석유수요를 담당하고 대규모 자본을 집중시켜 해외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세계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인물들은 에너지 국유기업의 막대한 자본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직위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가오리는 업무능력과 인품, 그리고 정책수행 능력에 더해 최고지도 그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더장은 장쩌민과 쑹칭홍의 지원을 받는 상하이방으로 분류된다. 정책적으로 장더장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발전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장더장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중국의 지북(知北)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의 최고지도부 내에서 북한에서의 유학이라고 하는 교육적 배경을 가진 지북 인사로서는 유일한 인물에 속한다. 김정일 사후 유동적인 북한 정세를 감안할 때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장더장이 2012년에 최고지도부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장더장은 2012년 상무위원회 임명되지 못할 경우 퇴진해야 하는 연령이다. 북한을 관리하고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 중국이 장더장을 최고지도부로 진입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원산, 저우샤오촨, 멩젠주, 왕후닝 등은 모두 2012년 최고지도부 후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류원산은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대내외 언론매체를 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14. 『아주경제』, “시진핑 시대 핵심100인” 시리즈, “장더장-①장더장의 세 가지 아이템,”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25000214.

현재 중국은 국내 사회·경제적으로 빈부격차와 중국공산당 간부 및 관료들의 권력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독립문제와 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신중화주의’와 같은 민족주의적 분출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내문제가 중국이 고도 성장을 지속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심각성을 다시 국내 언론과 여론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공산당은 언론매체 통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부분에서 중국 당국의 통제는 이른바 ‘중국식 인터넷 개방모델’로 불리면서 뉴미디어 매체의 정치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극대화시킨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모델 중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¹⁵ 이러한 성공적 미디어 관리감독을 이끌어온 인물이 류원산 선전부장이다. 향후에도 언론매체와 뉴미디어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중국은 류원산에게 지속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저우샤오촨은 중국 금융정책을 성공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중국이 금융 분야에서의 개혁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우샤오촨의 지속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명젠주는 중국 공안부장으로서 상무위원 9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 명젠주는 상하이로 기반으로 성장하고 경력을 쌓은 인물로 본래 장쩌민과 쟁칭홍의 강력한 후원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원자바오의 후원하에 현재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에서 공안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기에는 여러 약점이 있다.

¹⁵ 권위주의 정권의 인터넷 통제 모델과 평가에 관해서는 Shanthi Kalathil and Taylor Boas,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을 참조. 인터넷과 관련된 중국모델과 북한모델의 비교와 관련해서는 Lee Ji-Yong, Chen Cheng, ‘North Korea’s Internet Strateg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he Pacific Review*, 23:5 (2010), pp.649-670을 참조.

상하이방 실세는 이미 멩젠주를 강력히 지지할 이유가 사라졌고, 후진타오도 공청단에 기반이 없는 그를 후보로 지원할 이유가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멩젠주는 현재 상무위원 진입이 예상될 수 있는 후보군 중 여러 요소, 즉 연령, 그리고 파벌 간 권력경쟁 등을 감안할 때 대안적 인물로 선택될 개연성이 남아 있으며, 만약 상무위원에 임명되지 않는다면 현직에서 퇴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편 왕후닝 중공 중앙 정책연구실 주임은 상무위원에 진입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왕후닝은 장쩌민의 ‘삼개대표론’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건설하고 제시한 당대를 대표하는 이론가이다. 하지만 왕후닝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평하듯이 ‘서생’이자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따라서 왕후닝은 상무위원으로의 임명보다는 정치국 위원으로서 시진핑과 같이 ‘5세대’ 최고지도자의 새로운 이념적 기초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V. ‘5세대 지도부’ 예상 인물 특징분석을 통한 ‘5세대’ 정책 전망

중국은 자국을 이끌어 나갈 ‘5세대 지도부’ 선발을 위한 공식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2011년 10월 중국공산당은 ‘6중전회’를 개최한 직후 2012년 ‘18차 전대’를 위한 당대표 선출 과정에 들어갔다. 2012년 8월경에 중국공산당은 17기 당 중앙위원회 마지막 회의라 할 수 있는 중공 중앙 7차 전체회의(17기 7중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 ‘17기’를 마무리 짓고 10월에 개최될 공산당 ‘18차 전대’의 의제와 문건, 인사, 당장(黨章) 개정안 등을 다룬다. ‘17기 7중전회’가 개최되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핵심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18차 전대’ 다음 날에는 ‘18기 1중전회’가 개최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리커창 외에 왕치산, 리위엔차오, 왕양, 보시라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선출된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이 새롭게 구성될 것이다. 현재 중앙위원 중 연령제한에 걸려 자동 퇴진하는 인물들을 대신해 현재 중앙위 후보위원과 당·정·군 핵심인사 중에 새로운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어 ‘5세대’와 ‘6세대’를 책임질 중앙위원 후보위원들이 선발될 것이다. 이후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3월 양회(兩會) 이전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공산당과 정부를 이끌어 갈 인사개편이 폭넓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5세대’의 정책 방향과 특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행위자 중심의 접근법이 될 것이다. 즉, ‘5세대 지도부’ 구성인원들이 지금까지 집행해 온 정책 정향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전개할 정책 방향을 유추해 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역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중국 내에서의 각 파벌 간 권력 안배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인물이 그러한 권력 안배를 넘어 최고지도부에 진입했을 경우, 중국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역으로 추산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제도적 차원의 접근 방법이다. 정치지도자 한 개인의 정책 결정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 한 개인이 어느 정도 정책적 자율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의 제도화, 조직적 측면에서 일인 중심의 통치체제로부터 다원화된 관료 이해 집단으로의 전환, 중앙 지도부에서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과 지도부 선출이 한 행위자에게 주는 제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국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이라고 하는 상황변수이다. 한 개인이 아무리 영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도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요인을 관통하면서 행위자와 제도를 넘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객관적 상황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분출되고 군부 이익집단과 국유에너지 기업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차, 중국에 대항해 주변국 간 형성되고 있는

외교적 협력라인, 국내의 사회·경제적 긴장도 고조에 따른 국내 정세안정에 최우선의 정책적 고려를 두어야 하는 내적 제약, 그리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자국의 논리만을 가지고 국제문제를 다룰 수 없는 등의 제약 조건들은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 하나의 ‘한계선’을 그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국내외 정책 전개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정책을 보면, 국내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리커창 총리 체제하에서 경제성장 방식을 첨단산업과 서비스 부분 강화, 그리고 내수의 진작을 통한 국내경제 발전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 방식 전환 문제는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와 관련시켜 볼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내용은 국유기업 중심의 발전에서 민간경제 부분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실질적인 국내 소비력이 살아나고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첨단산업과 서비스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경제발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와 국유기업 주도로 민간의 부를 흡수해 자본의 규모를 전략적 국유산업 중심으로 키우고, 국가가 금융을 장악함으로써 국가로 집중된 자본을 바탕으로 국가중심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의 전환을 뜻한다. 즉 중국공산당 권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권력의 상당 부분 포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추진력, 그리고 경제정책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필요하다. 과거 1994년 개혁을 추진했던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리커창 현 부총리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할 때, 리커창 총리가 이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단, 현재 경제성장 방식 전환 정책을 이끌 가장 적합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왕치산 부총리가 상무부총리로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리커창 현 상무부총리와 왕치산 부총리의 협업체제가 어느 정도 잘 구축되느냐 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수준에서 집단지도체제와 실무차원에서의 다원적 의사결정체제 또한 한 개인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작동(work)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인물이 상무위원에 임명되느냐에 기반해서 만약 장더장이 상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장더장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온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옹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주·객관적 상황이 주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제약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하에 놓여 있다.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국유기업과 정부권력을 축소하고 민간경제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간경제 부분이 성장해야 국내 소비가 진작되고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민간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이 힘들어진다. 또한, 저임금 구조에 기반한 수출가공형 산업은 임금상승을 제약하게 된다. 수출가공형 산업은 뿐만 아니라 해외경제의 변동에 중국경제가 매우 취약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약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에 기반한 내수 위주의 경제를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체제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정치권력이 당·정 집중은 시민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과 의무(accountability)를 약화시킨다. 이는 중앙정부가 민간 부분에 대한 자금 대출을 독려하더라도 지방 단위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국유기업 간부들과 인적유대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리들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국유기업과 특정인에 대한 특권을 보장하게 하는 폐단을 낳게 된다. 즉, 당·정 간부와 개인적 유대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이 새로이 시장 경제에 사업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중앙수준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국유기업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가 현재의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개혁과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처한 이러한 정치·경제적 특수성은 국내 정책에 있어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위해 과감한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딜레마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석의 수준을 행위자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5세대 지도부’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각각의 행위자들이 현재 중국정치 체제와 이러한 정치 체제에서 형성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인적구성은 이러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이 ‘5세대’ 지도하에서도 현재의 정책에서 급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을 내오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국내정책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서도 역시 행위자 수준, 제도적 제약, 그리고 중국이 처한 주·객관적 정치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세대 지도부’는 유소년기와 청년기에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을 경험하고, 문혁 이후의 개혁개방 과정을 직접적으로 걸어온 세대이다. 문혁 이후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학문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 세대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이른바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하게 했다. 다시 말해, ‘5세대 지도부’는 현재 ‘6세대’ 예비 지도자 그룹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대보다는 못하지만, 중국식 발전과정과 중국의 특수성에 대한 확신과 중국의 발전상황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게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5세대 지도부’는 지금까지의 지도부보다는 대외관계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¹⁶

하지만 이것이 ‘5세대 지도부’가 지금보다 공세적 대외정책을 전개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지도부의 대외인식은 중국이 여전히 평화로운 발전에 전념해야 할 시기라는 기본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관계에 있어 ‘5세대’는 현재 중국의 대미 정책 기본기조라 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역점을 둘 것이다. 다만, 중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방력 증진은 더욱 과감하게 진행할 것으로

¹⁶ 중국의 대외정책 전개에 있어 국내외 제약조건에 대한 설명은 Quansheng Zhao, *Interpreting Chinese Foreign Policy: The Micro-Macro Linkage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을 참조.

보인다. 대외정책에서 ‘5세대’가 현재의 ‘도광양회(韜光養晦)’ 기조를 지속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문제로 중국의 사회적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 여기에 사회적 다원화가 지속됨에 따라 일반 시민의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자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voice)’를 내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과 단합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대외적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사회·정치적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약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5세대’에서의 대외정책 또한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Ⅶ. 결론 및 정책제언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출범할 예정이다. 국내적으로는 빈부격차 해소, 소수민족 문제관리, 법치 확립을 통한 사회적 합리성 강화, 다양화되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 전환,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내정치 과정의 민주화 또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호 모순적인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주변국들의 견제에 대응하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시장과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대내적 안정을 위해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동시적으로 중국 정치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재 ‘5세대’ 인적구성, 그리고 그들을 제약함과 동시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제도적 요인들은 이러한 풀기 쉽지 않은 도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는 중국이 이러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더 이상 긍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극복하고 지양해야 할 낡은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지도부 역시 그러한 정치제도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역량과 정치적, 정책적 지향을 떠나 현재 중국의 엘리트 집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경 권력을 엘리트 집단 스스로 부정하고 벗어나기란 좀처럼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중국 특색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이 중국의 질적 도약에 주는 제약을 어떤 형식으로든 벗어던져야 한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과 경제적·지정학적으로 깊은 이해를 하게 된 한국 또한 중국의 ‘5세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중국 ‘5세대 지도부’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결론은 어떠한 지도부가 구성되는지와 큰 관계없이 중국의 정책은 현재 ‘4세대 지도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이다. 즉, 중국은 권위주의적 정치제도를 유지할 것이고, 국가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며, 대외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중국에 대한 준비보다는 새롭게 구성되는 중국 ‘5세대 지도부’ 구성인원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같이 ‘인치(人治)’ 전통이 제도화된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5세대 지도부’ 인사들과의 교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현재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찰보다는 타협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아시아 국제관계라고 하는 힘의 역학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 지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이 중국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이해는 한국에게

는 대(對) 중국 관계에 있어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중국에 있어 수세적 자세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일관성’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중국이 처한 주·객관적 정치·경제상황은 중국경제와, 더 중요하게는 중국정치 체제의 작동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구에 ‘5세대 지도부’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정치·경제적 연관관계라고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매우 어려운 사회·정치적, 경제적 도전에 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한국에는 만약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과 입장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문헌>

- 소마 마사루. 『시진핑』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1.
- 이지용.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 분석 및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년 10월 29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주장환. “중국 제5세대 정치 엘리트.” 『국가전략』 17:3, (2011).
- Bo Zhiyue. *China's Elite Politics*. New Jersey: World Scientific, 2010.
- Cheng Li.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1.
- Ji-Yong Lee and Chen Cheng. ‘North Korea’s Internet Strateg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The Pacific Review*, 23:5 (2010).
- Paul Cavey. “Building a Power Base: Jiangzemin and the Post-Deng Succession.” *Issues and Studies* 33, 11. (1997).
- Quansheng Zhao. *Interpreting Chinese Foreign Policy: The Micro-Macro Linkage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Shanthi Kalathil and Taylor Boas.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3.
- 「아주경제」. “시진핑 시대 핵심100인” 시리즈,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11000360;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412000290.
- 法制晚報. ‘人大代表紀寶成稱北京市發展總指數全國第一.’ 2011年 3月 7日張歷歷. 『外交政策』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7.
- 中國社會科學院. 『2011社會藍皮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 中國政要一覽.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http://www.china.com.cn/zhuanti/2005/node_5035742.htm.
- 中國共產黨第十七屆中央委員會委員名單, http://www.china.com.cn/17da/2007-10/21/content_9098903.htm.